

碩 士 學 位 論 文

「テイル」「テアル」의 意味・用法에 관한 高査

指 導 教 授 金 勝 漢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 旻 慶

2004年 8月

「テイル」「テアル」의 意味・用法에 관한 고찰

指導教授 金勝漢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4年 5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金 旼 慶

姜京娥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4年 7月

審査委員長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국문초록>

「テイル」「テアル」의 意味·用法에 관한 고찰

金 旻 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勝漢

アスペクト 의 대표적인 형태로 「~テイル」를 들 수 있다. 「~テイル」는 동작·작용의 계속, 동작·작용의 결과상태 등 그 의미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일본어 학습자가 「~テイル」가 나타내는 의미와 용법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テイル」의 의미를 해석할 때 많은 혼돈을 빚을 수 있다.

또한 「~テイル」는 「~テアル」와 공통적으로 동작이 끝난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テイル」와 「~テアル」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일본어 학습자들이 「~テイル」와 「~テアル」 표현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テイル」와 「~テアル」의 의미표현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그 각각의 의미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テイル」의 의미를 「동작·작용의 계속」「동작·작용의 결과상태」「반복」「경험」「단순상태」로 나눠 살펴보았다.

「동작·작용의 계속」은 계속동사에 「~テイル」가 접속하여 나타나고, 「동작·작용의 결과상태」는 순간동사에 「~テイル」가 접속하여 나

* 본 논문은 2004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임.

타난다. 「반복」은 주체가 잇따라 같은 동작을 할 때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경험」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발화시 현재와 관련짓는 표현이다. 「단순상태」는 운동이 일어난다거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단순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둘째, 「～テアル」의 기본적 의미는 「대상의 결과상태」이다. 이 「～テアル」의 결과상태는 동사의 쓰임이나 문맥에 따라 대상의 위치가 변화한 결과상태와 대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テアル」의 파생적 의미로 「방임」과 「준비」로 나누어 보았다. 「방임」은 행위자의 의도성이 관계되어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을 말한다. 「준비」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동작을 끝내놓은 상태를 말한다.

셋째, 「～テイル」와 「～テアル」는 공통적으로 「결과상태」의 의미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자동사～テイル」는 사람의 의도에 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동작의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타동사～テアル」는 외부의 어떤 의도나 작용에 의한 동작의 결과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타동사～ラレテイル」는 외부의 동작·작용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한 동작·작용의 의도성을 문제로 삼지 않는 경우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II. 「～テイル」의 선행연구	4
III. 「～テイル」의 의미 분석	8
3.1 「～テイル」의 기본적인 의미	8
3.1.1 동작·작용의 계속	8
3.1.2 동작·작용의 결과상태	12
3.2 「～テイル」의 파생적 의미	13
3.2.1 반 복	14
3.2.2 경 험	16
3.2.3 단순상태	18
IV. 「～テアル」의 의미 분석	21
4.1 「～テアル」의 기본적인 의미	21
4.1.1 대상의 결과상태	21
4.2 「～テアル」의 파생적 의미	23
4.2.1 방 입	23
4.2.2 준 비	24
V. 「～テイル」와 「～テアル」의 비교	26
VI. 결 론	31
参 考 文 献	34
Abstract	38

I. 서 론

アспект란 동작의 전개가 여러 단계로 나타나는 문법형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동작의 처음 단계, 동작이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 동작의 끝 단계, 혹은 동작이 끝난 상태가 지속하는 단계 등 다양한 단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아спект의 대표적인 형태로 「~テイル」를 들 수 있다.

(1) いぬが走っている。

(2) 私はご飯を食べている。

(1), (2)의 「~テイル」 표현은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그러나 같은 「~テイル」 표현이더라도 「落ちる」「死ぬ」와 같은 동사에 접속했을 때는 그 해석이 달라진다.

(3) 財布が落ちている。

(4) 猫が死んでいる。

(3), (4)는 동작이 끝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3), (4)는 (1), (2)와 다른 「~テイル」의 의미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똑같은 「~テイル」 표현이더라도 나타나는 의미는 다양하다. 그러므로 일본어 학습자가 「~テイル」가 나타내는 여러 의미 용법과 그 각각의 의미가 어떠한 동사와 함께 쓰여 표현되는

지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テイル」의 의미를 해석할 때 많은 혼돈을 빚을 수 있다.

또한 「～テイル」는 「～テアル」와도 비슷한 의미 용법이 있다.

(5) 窓が開いている。

(6) 窓が開けてある。

(5), (6)의 경우는 모두 동작이 끝난 결과를 나타내지만 「～テイル」와 「～テアル」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テイル」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의미와 「～テイル」와 「～テアル」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일본어 학습자들이 「～テイル」와 「～テアル」 표현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テイル」와 「～テアル」의 의미표현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그 각각의 의미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로서 「～テイル」의 의미 분류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2. 「～テイル」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3. 「～テアル」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4. 「～テイル」와 「～테알」를 비교하여 각각의 의미 차이를 살펴보겠다.

「～テイル」와 「～테알」의 의미표현을 고찰하는데 필요한

예문은 일본문부성검정 교과서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1~6학년 총 12권), 중학교 국어 교과서(1~3학년 총3권), 明治書院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1~3학년 총3권)를 이용하였으며 그 외에 소설, 신문 등의 예문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적절한 예문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에서 재인용하였다.



Ⅱ. 「～テイル」의 선행연구

アスペクト의 대표적인 「～テイル」는 アスペクト의 연구와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학자마다 「～テイル」를 보는 관점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 金田一春彦(1955)를 비롯하여 藤井 正(1966), 高橋太郎(1969), 吉川武時(1973), 工藤真由美(1982), 寺村秀夫(1984)의 연구를 통하여 그 차이점과 유사성을 알아보겠다.

アスペクト를 집대성하고 일본어 アスペクト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金田一春彦(1955)은 동사가 「～テイル」가 접속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크게 상태동사, 계속동사, 순간동사, 제4종동사로 분류하였다.¹⁾

상태동사는 「～テイル」를 붙일 수 없는 동사로서 「ある, いる, おおきすぎる, 話せる」 등과 같은 동사가 있다.

계속동사는 어떤 시간 내에 계속해서 동작·작용이 이루어지는 동사로서 「読む, 笑う, 降る」 등과 같은 동사가 있다. 이와 같은 계속동사는 「～テイル」가 접속하여 동작·작용의 계속을 나타낸다.

순간동사는 동작·작용이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동사로서 「死ぬ, 消える, 止る, 結婚する」와 같은 동사가 있다. 이와 같은 순간동사는 「～テイル」가 접속하여 동작·작용이 끝난 후 그 결과의 상

1) 金田一春彦(1950), 「国語動詞の一分類」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刊, pp.7~10.

태를 나타낸다.

제4종동사는 시간의 관념을 포함하지 않는 동사로서 항상 「～テイル」가 붙어 어떤 상태를 띤다. 제4종동사의 종류로는 「すぐれる, ずばぬける, あふれる」등이 여기에 속한다.

藤井 正(1966)는 金田一春彦(1955)와 다르게 동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²⁾

1) 단독으로 쓸 수 없는 것

① 반드시 ている를 붙여 쓰는 것 : すぐれる, おもだつ

② 반드시 ている, てくる를 붙여 쓰는 것 : にやける, 似る

2)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

(1) 동작·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것

a. 시간을 초월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

③ 잠재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 : 足りる, (勉強が)できる

④ 사물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 当る, 異なる, 適する

b. 시간 안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

⑤ 사람의 태도에 관한 것 : いかかぶる, ひねくれる

⑥ 변화의 결과를 서서히 나타내는 것 : やせる, 古びる

(2)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것

⑦ 계속의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것 : 読む, 書く, 聞く

⑧ 순간의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것 : 起きる, 目撃する

⑨ 동작·작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 : 誤診する, 即行する

藤井 正(1966)는 ①~⑨의 동사에 「～テイル」가 접속하였을 경

2) 藤井 正(1966), 「『動詞+ている』の意味」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刊, p110.

우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⑦은 「동작의 진행」, ①·⑦·⑧의 일부는 「지속」, ⑥과 ⑦·⑧의 일부는 「결과의 잔존」, ⑦·⑧의 일부와 ⑨는 「경험」, ①의 대부분과 ②·④·⑤의 전부, ⑥·⑧의 일부는 「단순상태」, ⑧은 「반복」을 나타낸다고 한다. 즉, 藤井 正는 「~テイル」의 의미를 동작의 진행, 지속, 결과의 잔존, 경험, 단순상태, 반복, 존재로 나누고 있다.

高橋太郎(1969)는 「~テイル」 형태의 기본적인 용법을 「진행상태」와 「결과상태」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계속동사, 후자는 주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동사에 의해 나타난다고 본다.³⁾

이외 「~テイル」가 나타내는 의미 용법으로 「반복의 진행」과 「경험·기록」이 있으며, 두 의미는 계속동사와 순간동사 구분 없이 「~テイル」가 접속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吉川武時(1973)는 「~テイル」 형태의 아스펙트적 의미와 그 의미가 나타나는 조건을 대량의 데이터에 의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テイル」의 아스펙트적 의미를 동작·작용의 계속, 동작·작용의 결과상태, 단순한 상태, 경험, 반복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⁴⁾

다음으로 奥田靖雄(1977)의 영향을 받은 工藤真由美(1982)는 「~テイル」 형태를 기본적으로 「동작의 계속」과 「변화결과의 계속」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이 두 의미는 ‘주체의 동작’인가 ‘주체의 변화’인가 하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를 주체동작동사와 주체변화동사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주체

3) 高橋太郎(1969), 「すがたともくろみ」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刊, pp.124~126.

4) 吉川武時(1973), 「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の研究」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刊, p.164.

동작동사는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고, 주체변화동사는 변화결과의 계속을 나타낸다고 한다.⁵⁾ 이외 「~テイル」의 의미로 반복, 현재 유효한 과거의 운동실현, 단순한 상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寺村秀夫(1984)는 アスペクト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로 분류하고 있다.

- ┌ 第一次的アスペクト…スル (未然) / シタ (已然)
- ├ 第二次的アスペクト…テ形+보조동사(イル, アル, シマウ)
- └ 第三次的アスペクト…連用形 + ~はじめる/ ~出す/ ~かける

이와 같이 寺村秀夫는 「~テイル」 형태를 2차적아спек트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テイル」가 나타내는 의미 용법을 ①계속, ②과거의 일이 끝나 그 결과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 것, ③현재의 습관, ④집단으로서의 현상 계속, ⑤과거의 사실을 회상하여 머리 속에 재현시키는 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⁶⁾

①의 의미는 시간적 폭을 갖는 동작·현상을 나타내는 동사, ②는 순간동사, ③~⑤는 순간동사 및 계속동사의 각각에 「~テイル」가 접속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5) 工藤真由美(1982), 「シテイル形式の意味記述」 『人文学会雑誌』 《第4号》, 武蔵大学人文学会, p.55.

6)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pp.123~124.

Ⅲ. 「～テイル」의 意味分析

「～テイル」의 예문을 분석하여 「～テイル」의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미표현을 살펴보고, 그러한 의미가 나타나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3.1 기본적인 의미

3.1.1 동작·작용의 계속

「～テイル」가 계속동사와 함께 쓰여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 살펴 보겠다.

- (7) 道でしぎが鳴いている。 (中1年上, p.46)
- (8) 雪がしんしんとふっています。 (中1年, p.46)
- (9) 買い物客が品物を見ながら歩いている。 (小3 下, p.20)
- (10) おばあちゃんは、にこにこわらっています。 (小5年 下, p.75)
- (11) 母もぐらは、気の毒そうに見ている。 (小4年 下, p.99)
- (12) 空はよく晴れた。快い風も吹いている。 (中2年, p.156)
- (13) もうつばめが来てその上を飛んでいます。 (高1年, p.200)
- (14) 首を伸ばしてのぞき込んでみると、周りでありが動いている。
(高1年, p.52)

(7)~(1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テイル」 표현은 모두 동작이

나 작용이 끝나지 않고 현재 계속 중임을 나타낸다.

영어의 현재진행형과 같은 것이라 생각해도 좋겠다.⁷⁾ 이러한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동사는 (7)~(14)처럼 모두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계속동사」이다.

「鳴く, 降る, 歩く, 見る, 笑う, 吹く, 飛ぶ, 動く」와 같이 동작이 나 작용이 순간적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계속동사와 연결된 「~テイル」는 그 움직임이 시작하여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7)~(14)의 「~テイル」 표현은 「동작·작용의 계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작·작용이 그 과정의 도중에 있는 것을 말한다. (7)~(9)의 「鳴いている」「ふっている」「歩いている」는 각각 「鳴きつつある」「ふりつつある」「歩きつつある」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시작과 종결의 중간에 위치한다.

- (15) a. 「鳴きはじめる — 鳴いている —歩きおわる」
- b. 「ふりはじめる — ふっている —ふりおわる」
- c. 「歩いきはじめる — 歩いている —歩きおわる」

(7)~(14)와 같이 「~テイル」에 「계속동사」가 접속되어 「동작·작용의 계속」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순간동사」가 「~テイル」와 함께 쓰여 「동작·작용의 계

7) 井上和子 編(1989), 「テンス・アспект」 『日本文法小辞典』, 大修館書店, p.171.

속」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16) a. この地球上で、気象は刻々と変化している。 (中2年, p.36)

b. この地球上で、気象は変化している。

(17) a. 涙は目の中から抜け落ちるようにセーターの腕の上にぽつりぽつり落ちていた。 (工藤 1982 : 67)

b. 涙は目の中から抜け落ちるようにセーターの腕の上に落ちていた。

(16a)의 「変化している」은 「刻々」라는 수식어가 붙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작용의 계속」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6b)와 같이 「刻々」라는 수식어를 빼면 「계속」의 의미가 아닌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刻々」와 같은 변화의 속도나 변화의 진행상태를 규정하는 수식어가 붙어 순간동사가 「동작·작용의 계속」을 나타내게 된다.

(17a)의 「落ちる」은 순간동사이나, 「ぽつりぽつり」와 함께 쓰여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ぽつりぽつり」와 같이 변화나 움직임은 나타내는 수식어가 함께 쓰였을 때 계속의 의미가 나타난다. (17b)도 수식어 「ぽつりぽつり」를 빼면 「결과상태」의 의미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6) 「変化する」, (17) 「落ちる」은 순간동사로 시간의 폭을 갖지 않아 계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16)의 「刻々」나 (17)의 「ぽつりぽつり」와 같이 변화나 움직임의 수식어와 함께 쓰여 「동작·작용의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18) a. 中腰に鏡のそばで腕時計や懐中ものを身につけていた。

(工藤 1982 : 69)

b. 中腰に腕時計や懐中ものを身につけていた。

(18a)는 「鏡のそばで」 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テ格」이 함께 쓰여 「계속」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18a)의 「鏡のそばで」를 빼면 의미가 바뀌어, (18b)처럼 「결과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テ格」이 함께 쓰인 경우에도 「순간동사」가 계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16)~(18)에서 순간동사는 「刻々, ぽつりぽつり」와 같은 변화를 나타내는 수식어나 장소를 나타내는 「テ格」의 도움을 받아 순간동사가 갖는 시간적 길이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동작·작용의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3.1.2 동작·작용의 결과상태

(19) 空きかんやごみが落ちている。 (小5年 上, p.30)

(20) 死亡と通報した8人は確かに死んでいる。 (朝日新聞, 2003.12.26)

(21) 庭の池の中の木立に鳥が止まっている。 (中1年, p.202)

(22) あちこち、けむりがのこっています。 (小3年 下, p.54)

(23) 姉もぐらが、しっぽの上に石をのせられて、たおれている。

(小4年 下, p.94)

(24) 頭の上に三寸ほど、のどの下に三寸ほどそれ(魚ぐし)が出ている。

(高1年, p.157)

(25) パノ라마台には、茶店が三軒並んで建っている。 (高1年, p.166)

(26) 保子の姉の命日を、信吾は忘れている。 (山の音, p.55)

(19)~(2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落ちる,死ぬ,止る,残る,倒れる,出る,建てる,忘れる」는 모두 시작하는 동시에 끝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이러한 동사에 접속한 「~テイル」는 그 현상이 이미 실현되어서 끝났지만 그 결과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19)에서 「落ちている」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발화시 보다 앞에 「落ちる」라는 일이 완료되고, 지금 「落ちた」라는 결과가 남아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동사는 순간적인 작용으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金田一春彦는 이를 「순간동사」라 하였다.

「순간동사」가 「~テイル」 형태를 취하면 움직임이 끝나고 움직임을 주체가 변화한 결과 상태만 남게 된다. 즉, 순간동사에 「~テイル」가 접속하여 「동작·작용의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동작·작용의 결과상태」는 3.1.1 「동작·작용의 계속」과 구별하여 「~テイル」를 시간적 순서에 의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27) a. 読む → 読んでいる → 読んだ

8) 吉川武時(1982), 「テンス・アスペクトのあつかい」 『日本語学』(1-12), 明治書院, p.66.

b. 落ちる→ 落ちた → 落ちている

(27a)는 계속동사에 「～テイル」가 접속하여 「동작·작용의 계속」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27b)는 순간동사에 「～テイル」가 접속하여 「동작·작용의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27a)에서는 「～テイル」표현의 동작의 과정이 현재형과 과거형 사이에 위치하여 「동작·작용의 계속」을 나타내며, (27b)에서는 「～テイル」표현이 과거형 뒤에 위치하여 「동작·작용의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27a)에 쓰이는 동사는 「계속동사」, (27b)에 쓰이는 동사는 「순간동사」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즉 「～テイル」는 계속동사와 함께 쓰여 「동작·작용의 계속」을 나타내고, 순간동사와 함께 쓰여 「동작·작용의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동작·작용의 계속」과 「동작·작용의 결과상태」는 「～テイル」형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의미이다.

3.2 파생적 의미

「～テイル」의 기본적 의미는 3.1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작·작용의 계속」과 「동작·작용의 결과상태」였다. 이러한 의미표현이 경우에 따라 기본적 의미에서 파생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3.2.1 반 복

- (28) 私は毎日誰に聴かせるともなくギターを弾いています。
(ノルウェイの森 下, p.220)
- (29) 北鎌倉は電車の窓近くに、梅が多いが、信吾は毎日見るともなく見ている。
(山の音, p.160)
- (30) 川人さんは東大で教える学生を連れ、毎年沖縄を訪ねている。
(朝日新聞, 2004.3.29)
- (31) 週に三回新宿のレコード屋で夜働いている。
(ノルウェイの森 上, p.117)
- (32) 土曜日の夜は永沢さんは親戚の家に泊るという名目で毎週外泊許可をとっているのだ。
(ノルウェイの森 下, p.129)
- (33) 教師の自家用車通勤の自粛がよく新聞にのっている。
(子どもの隣, p.105)
- (34) 毎年何万人もの人がガンで死んでいる。
(日本文法事典, p.116)

(28)~(31)은 「~テイル」 표현만 보면 「동작·작용의 계속」을 나타낸다. (32)~(34)는 「~테イル」 표현만 보면 「동작·작용의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毎日, 毎年, 週に三回, 毎週, よく」와 같은 표현의 도움을 받아 (28)~(34)는 모두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8)~(33)은 「私, 信吾, 川人さん」 등과 같이 동일 주체에서 나타난다. (34)는 「Aが死んでいる」「Bが死んでいる」「何万人もの人が死んでいる」와 같이 별개 주체의 반복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동일 주체나 복수 주체가 잇따라 같은 동작을 할 때 그것을 하나의 진행 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반복」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반복은 어떤 동사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35) 走っている, (絵を)かいている, (水を)飲んでいる

(36) 起きている, 寝ている, 始まっている, 終わっている

(35), (36)의 「～テイル」 표현은 문맥 없이 단지 위의 표현만 보았을 때, (35)는 동작이 현재 눈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36)은 동작이 이미 완료한 결과 상태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37)~(40)의 예문에서 그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7) 私はこの頃10キロ走っている。 (寺村 1984 : 128)

(38) 日曜日には家にいて、油絵をかいている。 (寺村 1984 : 128)

(39) そのいただきにそって、たくさんの地震が起っている。

(小5年上, p.45)

(40) この地球ではいつもどこかで朝が始まっている。 (中1年,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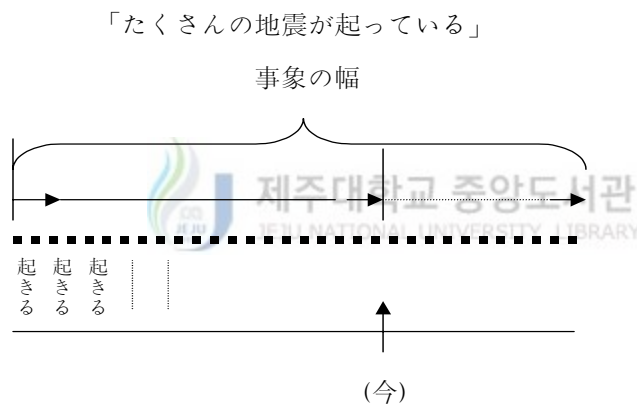
(37)~(40)은 「この頃, 日曜日には, たくさん, いつも」와 같은 표현이 함께 쓰여 모두 현재 반복해서 일어나는 표현이 된다. 즉 「반복」은 (37), (38)의 「走しる, 描く」와 같은 「계속동사」이든 (39), (40)의 「起きる, 始まる」와 같은 「순간동사」이든 상관없이 「～テイル」 형태가 「반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복」의 의미는 「この頃」와 같이 폭이 넓은 기간을 나타내는 형식이나 「毎日, 毎年, 毎週, よく, いつも, たくさん, 週に三回」 등과 같이 빈도를 나타내는 수식 표현이 함께 쓰여 그 의미

가 분명해진다.

이와 같은 「반복」의 표현을 寺村秀夫(1984)는 점으로 표현하고 있다.⁹⁾ (37) 「私は走しる」나 (39) 「地震が起きる」등과 같은 반복이 일어나는 하나 하나의 동작은 각각 시작해서 끝나는 것으로 이를 점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점들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일어남으로써 전체로서는 점의 계속인 선으로서 취급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3.2.2 경 험

(41) 彼は3年前に結婚している。 (谷口 1996 : 433)

(42) 1864年2月に政恕は仕事の都合で赴いた京都で、新選組の面々を訪ね

9)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pp.128~130.

- ている。 (朝日新聞, 2004.3.30)
- (43) 美と醜の対立というのが、マゾッホは『醜の美学』という小説さえ書いて
ている。 (心の夜想曲, p.116)
- (44) 私たちが平壤に行けば子どもを帰すという約束はなかったと聞いている。
 (朝日新聞, 2003.12.6)
- (45) 私自身、病院生活だけは何回も送ったし、手術も四回ほど受けてる。
 (心の夜想曲, p.43)
- (46) 昨年 3 月、家族会が拉致問題解決への協力を求め訪米した際にも会っ
ている。 (朝日新聞, 2004.1.7)

(41)~(46)은 모두 과거에 행해진 동작들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의 일인데 「~タ」 형태가 아닌 「~テイル」를 쓰고 있는 것은 이전의 동작을 문제로 하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발화 시 현재와 관련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⁰⁾

다만 동작 자체는 과거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3年前, 1864年 2月, 昨年 3月」과 같은 과거를 나타내는 성분과 함께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テイル」의 의미표현을 「경험」이라 한다.

「경험」은 3.1.2 「동작·작용의 결과상태」에서 파생한 것으로 본다.¹¹⁾ 이 두 용법은 모두 동작이 끝난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3.1.2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작·작용의 결과상태」는 동작·작용의 변화가 끝난 결과에 중점을 두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험」은 동작·작용 그 자체에 중점을 둔다.

10) 工藤真由美(1982), 「シテイル形式の意味記述」 『人文学会雑誌』 《第4号》, 武蔵大学人文学会, p.80.

11) 吉川武時(1973), p.164.

(41)에서 「結婚している」만을 보았을 때는 「결혼했다」라는 결과상태를 나타내지만, 「3年前」라는 수식어가 함께 쓰여 현재 화자가 발화하는데 있어 3년 전 결혼한 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작·작용에 중점을 두는 「경험」은 동작·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¹²⁾

(47) *いままでに何度もうぬぼれている。 (藤井 正 1966 : 106)

(48) *いままでに何度もつかれている。 (藤井 正 1966 : 106)

(47), (48)의 「うぬぼれている, つかれている」는 동작·작용이 아니라 단지 현재 그러한 결과상태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いままでに何度も」와 같이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였을 때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와 같이 「경험」은 ‘운동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작·작용의 변화성이나 계속성은 문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41)~(44)의 「結婚する, 訪ねる, 書く, 聞く」처럼 순간동사, 계속동사 여하를 불문하고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3.2.3 단순상태

(49) あなたはママの小さいころによく似てるわ。 (子どもの隣, p.20)

12) 藤井 正(1966), p.106.

(50) だが、北海道の森には、今もえぞまつがゆうゆうとそびえている。

(小6年下, p.105)

(49), (50)은 운동이 일어난다거나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단순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49)는 얼굴이 닳고 있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닳았다는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닳았다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50)도 단지 숲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似る, そびえる」와 같은 시간의 관념을 포함하지 않고 어떤 상태를 띠는 「제4종동사」는 「~テイル」와 함께 쓰여 「단순상태」를 나타낸다. 즉 「단순상태」는 동작·작용을 문제로 삼지 않는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표현이다.

(51) 遊山船にでも乗ったような顔をしている。 (高2年上, p.274)

(52) ポンポンポンと、木魚の音がしています。 (小4年下, p.67)

「단순상태」가 동작·작용을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에 (51), (52)의 「顔をしている,音がしている」는 각각 「~顔だ, ~音だ」와 같은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51), (52)의 「顔をしている,音がしている」는 「단순상태」를 나타낸다.

(53) 雪がまだすこしのこって、あたりはしんとしています。

(小2年上, p.4)

(54) それなのに、ライオンは、おりの中でぐったりしています。

(小4年上, p.4)

(53), (54)의 「しんとしている, ぐったりしている」와 같은 「의태어+している」 표현으로 「단순상태」를 나타낸다.¹³⁾

(55) ここから一直線に、駅に向かって透明ガラス張りのトンネルが続いている。
(中3年, p.16)

(56) 地図の上では木曾川のすぐそばであるが、道は山沿いで川からはかなり離れている。
(高1年, p.6)

(57) 石段の下の鳥居の前を、アスファルトの道が通っている。
(高1年, p.52)

(55)~(57)은 「続いている, 離れている, 通っている」만 보면 동작·작용이 나타나는 표현이다. 그러나 (55)의 계속을 나타내는 「続いている」는 움직임이 없는 「トンネル」가 주어로 와서 단순상태를 나타낸다.

(56)의 경우는 「川」라는 무생물이 주어가 되어 위치관계의 단순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57)에서는 「通る」라는 동사와 「道」가 주어로 함께 쓰여 단순상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55)~(57)에서 동작·작용이 나타나는 동사도 「トンネル、川、道」와 같은 무생물이 주어로 와서 형용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순상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3) 吉川武時(1973), pp.186~187.

IV. 「～テアル」의 意味分析

「～テアル」는 「～テイル」만큼 사용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テアル」 또한 나타내는 의미가 다양하다. 「～テアル」의 의미를 기본적 의미와 파생적 의미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4.1 기본적 의미

4.1.1 대상의 결과상태

(58) 場面の展開がどのようになっているか、各場面がどのように構成されているかは、下段に○印で示してある。 (中学校1年, p.115)

(59) それは父親の溺愛ぶりを示すもので、どうか息子が死なないようにと神仏に願をかけて、その首輪でつなぎ止めてあるのだ。

(中学校3年, p.116)

(60) 図を見るとわかるように、「釣り棒」には簡単な加工がしてある。

(中学校3年, p.53)

(58)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결과가 남아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59)는 목걸이로 연결해 고정시킨 결과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58)~(60)의 「～テアル」는 모두 어떤 대상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テアル」의 결과상태는 (60)처럼 「図を見るとわかるように」과 같은 표현과 함께 쓰여 어떤 목적을 위한 것

이라는 표현이 분명해진다. 즉 「~テアル」는 의도성이 포함된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テアル」의 기본의미는 대상의 결과상태이지만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 (61) 自宅二階の四畳半の部屋に、遺品を納めた段ボール箱が積んである。
(朝日新聞, 2004.1.9)
- (62) 緑がゆれているやなぎの下に、かわいい白いぼうしが、ちょこんと置いてあります。
(小4年 上, p.56)
- (63) 水鉄砲, 水中花, 水中眼鏡, かごまくら, ゆかた, 麦わらぼうし, 回りどうろうーと, いかにもおじいちゃんらしいおくり物を, 泰はみんな大事に使い, 今でもそっくりしまっている。
(小5年 上, p.53)
- (64) 今回の選挙から採用される、目の不自由な有権者のための点字投票用紙1万6000枚も一緒に入れている。
(朝日新聞, 2003.10.21)

(61)은 상품이 쌓여져 있는 위치의 변화 결과로서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위치변화는 공간적인 존재양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61)~(64)의 「積んである, 置いてある, しまっている, 入れている」처럼 그 의미가 위치 변화와 관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61)~(64)의 「~テアル」는 대상의 위치가 변화한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 (65) 山小屋の看板には「頂上まで三時間」と記してある。(中3年, p.40)
- (66) 「UFO関連の雑誌に自分の広告を載せ、問い合わせを待って」と記事には書いてある。
(朝日新聞, 2003.2.15)
- (67) カルピスの空き箱に張ってある紙に、色鉛筆でかやぶき屋根の民家と

自在かぎが描いてある。

(朝日新聞, 2004.5.9)

(65)는 간판에 ‘정상까지 3시간’ 이라는 내용이 적힘으로서 간판이라는 대상이 변화된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66)은 기사에 내용이 적혀짐으로서 대상이 변화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67)은 종이라는 대상에 그림이 그려짐으로서 대상이 변화된 결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65)~(67)의 「~テアル」는 어떠한 대상이 변화한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テアル」의 기본적 의미는 동사의 쓰임이나 문맥에 따라 (61)~(64)과 같이 대상의 위치가 변화한 결과상태와 (65)~(67)처럼 단순히 대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상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テアル」의 의미는 모두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대상의 결과상태가 이루어졌다는 의지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

4.2 파생적 의미

4.1에서 「~テアル」의 기본적 의미는 「결과상태」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テアル」는 결과상태가 아닌 다른 의미가 나타난다.

4.2.1 방 입

(68) 机の上には、読みさしの本をひらきっぱなしにしてある。

(吉川 1982 : 53)

(69) 報告書の説明は調査した業者に任せてある。(朝日新聞, 2004.4.5)

(68)은 책을 펼쳐둔 채 내버려 둔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69)의 「ひらきっぱなしにしてある」는 다음 읽을 사람을 위해 내버려두었다든지, 잠시 메모를 위해 펼쳐 둔 채 방치하였다든지 하는 행위자의 의도가 포함된 표현이다. (68)은 보고서의 설명을 상관하지 않고 업자에게 자유롭게 하도록 맡겨 둔 표현이다. 즉 (68), (69)는 모두 방임의 상태로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는 그것을 방임으로 두는 사람의 의사에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テアル」 표현이 쓰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위자의 의도성이 관계되어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을 방치해 두는 의미표현을 「방임」이라 한다.



4.2.2 준 비

(70) 日本に来る前に日本語を習ってある。(吉川 1989 : 119)

(71) 一部は試着でき、プリクラ機も用意してある。(朝日新聞, 2004.3.10)

(72) 加藤村長には、住民投票で意思を確認してもらわないと私もなんとも
言えないと話してある。(朝日新聞, 2003.10.3)

(73) 地下足袋の底には滑り止めのびょうが打ってある。

(朝日新聞, 2003.9.3)

(70)은 일본에 가기 전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 미리 일본어를 배워

둔다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70)~(73)은 모두 어떠한 목적을 위해 동작을 끝내놓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用意する」와 같은 뜻을 갖는 동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준비」라 한다.

이와 같이 「~テアル」는 문맥적인 상황에서 「방임」 「준비」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V. 「～テイル」와 「～テアル」 비교

3.1.2에서 살펴보았듯이 「～テイル」는 「동작·작용의 결과상태」의 표현을 나타낸다. 또한 4.1.1에서 「～テアル」의 기본적인 의미로 「대상의 결과상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テイル」와 「～テアル」 모두 「결과상태」라는 공통된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 의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74) a. 机がならんでいる。

b. 机がならべてある。

(74a), (74b)는 의미 면에서 모두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두 형태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74a)의 「ならんでいる」는 책상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행위자의 아무런 목적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이에 반해 (74b)의 「ならべてある」는 행위자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책상을 나열하였다는 의도된 행위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ように, ために」와 같은 표현이 첨가된 경우에는 「～テアル」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¹⁴⁾

(75) 仕事がしやすいようにならべてある。

(76) 会議をするためにならべてある。

14) 砂川有里子(1986), 『日本語文法セリフマスターシリーズ2する・した・している』, くろしお出版, p.42.

이와 같이 「～テアル」는 기본적으로 의도적 행위를 염두에 둔 결과의 상태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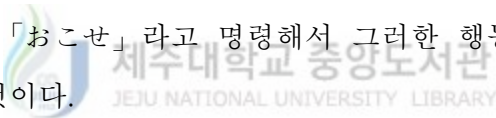
(77) a. 上位4人は比例単独候補者で、5位に小選挙区との重複候補者が16人並んでいる。 (朝日新聞, 2003.10.3)

*b. 上位4人は比例単独候補者で、5位に小選挙区との重複候補者が16人並べてある。

(78) a. 彼は今までに2度も交通事故を起こしている。

(原 沢 伊都夫 1998 : 18)

*b. 彼は今までに2度も交通事故を起こしてある。

(77), (78)에서 (77b)는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ならべ」라든지 (78b)의 경우 「おこせ」라고 명령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77a)는 후보자들이 외부의 행위나 작용에 의해 줄을 선 것이 아니며, (78a)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의도성 없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78b)의 경우 「実は保険金をくすねる為に、わざと交通事故を起こしてあるんだ」라고 하여 일부러 그러한 상황을 설정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역시 특수한 상황 안에서이다.

따라서 (77a), (78a)의 「자동차～テイル」를 (77b), (78b)의 「자동차～テアル」로 바꿔 쓰면 비문이 된다. 즉 「자동차～テイル」는 다른 사람의 작용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경우, 혹은 사람의 의도에 의하지 않고 동작이 일어난 경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동사~テイル」는 일반적인 움직임에 의해 생긴 결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지만, 「타동사~テアル」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작용을 가한 동작의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자동사~ている」, 「타동사~てある」 및 「타동사~られている」의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겠다.

- (79) a. 店のテーブルの上は、できたてのおかずや材料がずらっと並んでいる。 (朝日新聞, 2004.2.18)
- b. 店のテーブルの上は、できたてのおかずや材料がずらっと並べてある。
- c. 店のテーブルの上は、できたてのおかずや材料がずらっと並べられている。



이 세 예문은 모두 「결과상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각각 차이가 있다. (79a)는 「자동사~テイル」의 문장이다. 이 경우 「並んでいる」는 반찬이나 재료가 나열되어 있는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있는 것에 중점을 둔 표현이다.

(79b)는 「타동사~テアル」의 문장이다. 이 경우 「並んである」는 반찬이나 재료가 나열되어 있는 「결과상태」가 외부의 행위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79c)는 「타동사~ラレテイル」의 문장이다. 이 경우 「並べられている」는 (79b)와 마찬가지로 어떤 외부의 작용에 의해 나열되어진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타동사~テアル」와 「타동사~ラレテイル」는 둘 다 외부의 행위나 작용에 의해 가해진 표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을 통해 두 표현의 차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80) a. 高速道路のあちこちで、野うさぎがはねられている。

(寺村 1984 : 150)

*b. 高速道路のあちこちで、野うさぎがはねてある。

(81) a. どんな土や岩にも、ごくわずか塩分が含まれている。(中2年, p.47)

*b. どんな土や岩にも、ごくわずか塩分が含んである。

(80a), (81a)는 「타동사~ラレテイル」의 문장이다. 이러한 (80a), (81a)의 「타동사~ラレテイル」를 (80b), (81b)와 같이 「타동사~テアル」로 바꾸었을 때는 비문이 된다.

(80)은 고속도로에 토끼가 치여 있는 것을 보고 (80b) 「野うさぎが撥ねてある」라고 하면 누군가 일부러 그 토끼를 치이게 해서 죽여 놓고 갔다는 의미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80a) 「野うさぎがはねられている」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사람의 비의도적인 실수임을 나타낸다. 즉 그것이 타인의 작용에 의한 것이긴 하나 비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81a) 「含まれている」도 흙과 바위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무언가의 원인에 의해 현재의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

이와 같이 「타동사~ラレテイル」는 외부의 행위나 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작용이 비의도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세 표현은 모두 「결과상태」라는 공통점을 갖으나 의미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자동사~テイル」는 행위자의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동작의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타동사~テアル」는 제 3자의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타동사~ラレテアル」는 외부의 행위나 작용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러한 작용이 비의도적인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VI. 결 론

일본어 アスペクト의 대표적인 「～テイル」와 함께 「～テアル」의 의미표현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다양한 의미표현을 보이는 「～テイル」와 「～テアル」를 기본적 의미와 파생적의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동사가 「～テイル」에 접속하여 「동작·작용의 계속」을 나타내고, 순간동사가 「～テイル」에 접속하여 「동작·작용의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동작·작용의 계속」과 「동작·작용의 결과상태」가 「～テイル」의 기본적 의미임을 살펴보았다.

「～テイル」의 파생적 의미로는 「반복」·「경험」·「단순상태」가 있었다.

「반복」은 주체가 잇따라 같은 동작을 할 때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반복은 「この頃, しばしば, 毎日, 毎朝」와 같은 시간이나 빈도를 나타내는 수식 표현에 의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졌다.

「경험」은 「동작·작용의 결과상태」에서 파생한 표현으로, 과거의 일어난 일을 발화시 현재와 관련짓는 표현이다. 이러한 「경험」은 동작 그 자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계속동사, 순간동사에 관계없이 동작·작용이 있는 경우에 나타났다.

「단순상태」는 운동이 일어난다거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단순한 형용사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떠한 상태를 띄는 제 4종동사에 「～テイル」가 접속하여 나타난다. 이외에도 「～顔をしている, ～色をしている」나 「의태어+している」를 비롯하여 동작·작용이 나타나는 동사라도 非情物인 주어와 함께 쓰여 「단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둘째, 「～テアル」의 기본적 의미는 「결과상태」이다. 이 「～テアル」의 결과상태는 동사의 쓰임이나 문맥에 따라 대상의 위치가 변화한 결과상태와 대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テアル」의 파생적 의미로 「방임」과 「준비」가 있다.

「방임」은 행위자의 의도성이 관계되어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을 말한다.

「준비」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동작을 끝내놓은 상태를 말한다.

셋째, 「～テイル」와 「～テアル」는 공통적으로 「결과상태」의 의미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면, 「자동사～테イル」는 사람의 의도에 의하지 않고 자연히 이루어진 동작의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타동사～테알」은 외부의 어떤 의도나 작용에 의한 동작의 결과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타동사～ラレテイル」는 외부의 동작·작용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한 동작·작용의 의도성을 문제로 삼지 않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테イル」와 「～테알」는 함께 사용되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 이외에도 문맥과 함께하는 수식표현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의미표현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参 考 文 献

<예문출전>

小学校教科書(1993), 国語(1年上~6年下), 光村図書出版.

中学校教科書(1992), 国語(1年~3年), 光村図書出版.

高校教科書(1992), 国語(1年~3年), 明治書院.

遠藤周作(1989), 心の夜想曲, 文春文庫.

川端康成(1957), 山の音, 新潮文庫.

灰谷健次郎(1988), 子どもの隣り, 新潮文庫.

村上春樹(1987), ノルウェイの森 上・下, 講談社.

朝日新聞



외국문헌

<단행본>

庵功雄(2001), 『新しい日本語学入門ことばのしくみを考える』, スリー
エーネットワーク.

金水敏・工藤真由美・沼田善子(2000), 『時・不定の取り立て』, 岩波書店.

金田一春彦(1950), 「国語動詞の一分類」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
書房刊.

金田一春彦(1955), 「日本語動詞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 『日本語動詞のアス
ペクト』, むぎ書房刊,

工藤真由美(1995),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
の表現-』, ひつじ書房.

砂川有里子(1986), 『日本語文法セリフマスターシリーズ2 する・した・して

- いる』, くろしお出版.
- 鈴木重幸(1957), 「日本語の動詞のすがた(アスペクト)について」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刊.
- 高橋太郎(1969), 「すがたともくろみ」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刊.
- 高橋太郎(1994), 『動詞の研究-動詞の動詞らしさの発展と焼失-』, むぎ書房.
-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 藤井 正(1966), 「「動詞+ている」の意味」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刊.
- 文化庁(1980), 『日本語と日本語教育(文法編)』, 大蔵相印刷局.
-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改訂出版-』, くろしお出版.
- 益岡隆志・仁田義雄・郡司隆男・金水敏(1997), 『文法』, 岩波書店.
- 吉川武時(1973), 「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の研究」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刊.
- 吉川武時(1989), 『日本語文法入門』, アルク.

<사전류>

- 北原保雄 外(1981), 『日本文法事典』, 有精堂出版株式会社.
- 国語学会(1981), 『国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 日本語教育学会 編(1982),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 松村明 編(1971), 『日本文法大辞典』, 明治書院.

<논문>

- 井上優(2001), 「中国語・韓国語との比較から見た日本語のテンス・アスペクト」 『言語』 (30-12), 大修館書店.

- 井上和子 編(1989), 「テンス・アスペクト」 『日本文法小辞典』, 大修館書店.
- 奥田靖雄(1978),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金田一的段階-」 『日本語研究の方法』, 麦書房.
- 奥田靖雄(1978),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上)・(下)」 『教育国語』 (53-6), 麦書房.
- 尾上圭介(1982), 「現代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 『日本語学』 (1-12), 明治書院.
- 紙谷栄治(1987), 「テンスとアスペクト」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4日本語の文法・文体(上)』, 明治書院.
- 紙谷栄治(1990), 「アスペクト」 『日本語学』 (9-10), 明治書院.
- 何 琳(1996), 「「～ている」に相当する中国語の表現から見た日本語と中国語」 『日本語教育』 (31), 日本語教育学会.
- 工藤真由美(1982), 「シテイル形式の意味記述」 『人文学会雑誌』 《第4号》, 武蔵大学人文学会.
- 工藤真由美(1982), 「シテイル形式の意味のあり方」 『日本語学』 (1-12), 明治書院.
- 工藤真由美(1987), 「現代日本語のアスペクトについて」 『教育国語』 (91), むぎ書房.
- 小矢野 哲 夫(1982), 「テンス・アスペクト観の変遷」 『日本語学』 (1-12), 明治書院.
- 杉村泰(1996), 「テアル構文の意味分析-その「意図性」の観点から-」 『名古屋大学人文科学研究』 (25).
- 高橋太郎(1999), 「「シテオク」と「シテアル」の対立について」 『関西外国語大学研究論集』 (70), 関西外国語大学.
- 寺村秀夫(1982), 「テンス・アスペクトのコト的側面とムード的側面」 『日本語学』 (1-12), 明治書院.
- 西尾寅弥(1964), 「テイルとテアル」 『講座 現代語6 口語文法の問題点』, 明治書院.

- 原沢伊都夫(1998), 「テアル形の意味-テイルとの関係において-」 『日本語教育』 (98), 日本語教育学会.
- 前田綱紀(1982), 「「…している、…してある」の日本語朝鮮語対照」 『日本語教育』 (48), 日本語教育学会.
- 森山卓郎(1984), 「アスペクトの意味の決まり方について」 『日本語学』 (3-12), 明治書院.
- 森田良行(1968), 「動作・状態を表すいい方」 『日本語教育』 (4), 日本語教育学会.
- 吉川武時(1982), 「動詞のアスペクトについて」 『日本語教育』 (47), 日本語教育学会.
- 吉川武時(1982), 「テンス・アスペクトのあつかい」 『日本語学』 (1-12), 明治書院.



한국문헌

<논문>

- 金真禧(1998), 「「他動+てある」文의 意味・用法에 관한 研究」, 漢陽大学 大学院 碩士論文.
- 李明玉(1995), 「日本語動詞의 アスペクト的 意味考察-「て+補助動詞」를 중심으로-」, 啓明大学 大学院 碩士論文.

<Abstract>

- A Consideration on the meaning and usage of
「teiru」, 「tearu」 -

Kim Min-kyoung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Seung-han

「~teiru」 is the typical forms of Aspect. It has various meanings such as a continuance of action and function, a result condition of action and function. So, if a Japanese language learner couldn't have enough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and use of 「~teiru」, he or she would be in trouble with getting the meaning of 「~teiru」.

Both 「~teiru」 and 「~tearu」 represent the result of action, but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ir meanings. Japanese language learners are likely to be in trouble with understanding those 「~teiru」, 「~tearu」 expressions, because of this kind of similarity between 「~teiru」 and 「~tearu」.

Therefore in this thesis, I studied which elements make that difference in meanings, focusing on the expression of 「~teiru」 and 「~tearu」.

First, I considered the meaning of 「~teiru」 by dividing it into 「a continuance of action and function」, 「a result condition of action and function」, 「repetition」, 「experience」 and 「simple state」.

While 「a continuance of action and function」 is expressed whe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teiru」 attaches to a continuative verb, 「a result condition of action and function」 is used when 「~teiru」 attaches to a momentary verb. 「Repetition」 is considered as one process if the subject repeats its action. 「Experience」 is a kind of expression when we talk about any event in the past. 「Simple state」 refers to a simple condition not a movement or change.

Second, the basic meaning of 「~tearu」 is 「the result condition of object」. We can divide this result condition into one which results from change of object according to usage of verbs and patterns, the other which represents the change of object. I classified the derivative meaning of 「~tearu」 with 「noninterference」 and 「preparation」. 「Noninterference」 means leaving certain action to itself without any intention of a performer. 「Preparation」 is a state in which an action is finished for a certain purpose.

Third, both 「~teiru」 and 「~tearu」 have the same meaning in expressions. But,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intransitive verb ~teiru」 means the result condition which comes naturally without any intention by others; on the other hand, 「transitive verb ~tearu」 represents the result condition which results from any intention or effect by others. 「transitive verb ~rareteiru」 comes from action and function outside, but it doesn't consider the intention of action and function.